



3면

도의회 "부동산 투기 근절 앞장설 것"

# 전주매일

2021년 4월 6일 화요일 (음 2월 25일) 제275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도는 5일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전북연구원 권혁남 원장, 연구위원, 도 실·국장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보고회를 열고, '대선 공약 (국책사업) 발굴 추진단' 운영계획과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미래성장 국책 발굴 '대장정'

전북도, 대선공약 발굴 추진단 본격 가동

16일까지 '킵오프' 미팅

9월 공약 최종 확정 예정

전북발전 견인 사업도 발굴

전북도가 내년 3월에 치러질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각 정당과 후보에게 제안할 대선 공약사업과 미래성장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국책사업 발굴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도는 5일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전북연구원 권혁남 원장, 연구위원, 도 실·국장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보고회를 열고, '대선공약 (국책사업) 발굴 추진단' 운영계획과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와 전북연구원 중심의 대선공약 (국책사업) 발굴 추진단은 ▲산업경제 ▲농업농촌·새만금해양 ▲문화관광 콘텐츠 ▲지역개발·SOC ▲환경·안전의 5개 분과 100여 명의 관계공무원·전문가들이 참여해 분과별 아이템 발굴 활동, 실현가능성 분석, 자문회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16일까지 대선공약 발굴 킵오프 미팅을 실시해 외부 전문가들과 아이템 논의를 진행하고, 정책화 과정을 거쳐 대선공약으로 수용가능성, 지역

경제 파급력,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합동간담회를 7월에 실시하는 등 오는 9월까지 대선공약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지역내 숙원사업 등 주요 현안을 분석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산업간 융·복합으로 농생명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 전략사업, 탄소·수소·신재생 에너지의 그린뉴딜 선도사업, 새만금 연계사업 및 세종·충청권, 경강권 등과 유기적인 발전 방안,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문명으로 전환 프로젝트, 균형발전 활력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대선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아이টে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세부전략을 마련, 국책사업으로 관리하며, 국가예산 활동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2022년~2023년 국책사업 발굴보고도 함께 진행됐으며, 올해 대선공약·국책사업 발굴 확대에 따른 협조사항 등을 당부했다.

국책사업 발굴 포럼을 통해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응하고 전북발전을 견인할 23건, 1조6,000여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했다.

이들 사업들은 정부계획 반영 및 2022~2023년 국가예산 확보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발굴 사업중 한국판 뉴딜 대응 사업은 그린뉴딜 8개사업 K-Seed 혁신클러스터 조성, 자연친화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화 기반 구축, 재생에너지 융합 스마트 해수농업 COMPLEX 구축, 바이오헬스 그린바이오 원천기술 실증지원 사업, 에너지저장·탄소제로 산업단지 조성, 부유식 그린수소 생산 시스템 개발, 탄소소재 기반 모빌리티산업 육성, 산림신제품 K-바이오 산업단지 등이 있으며, 디지털뉴딜 6개사업으로 세계유산 5G실감형 실증사업, 전북 XR 관광 선도사업 구축, 국가 노후산단 진입도로 스마트화, 비대면 비즈니스 혁신창업 기반 구축, 농촌형 스마트 그린 특화농공단지 조성, ICT 융합 기계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이 있다.

이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동부권 사업으로는 바이오헬스 그린바이오 원천기술 실증사업, 산림신제품 K-바이오 산업단지, 국도 30호선 무주 설천~무풍 시설개량, 국지도 55호선 순창~구림 확장, 국가노후산단 진입도로 스마트화, 농촌형 스마트그린 특화농공단지 조성 등이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도정 핵심사업들이 대선공약으로 채택이 돼 사업속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출연기관, 시군 등과 긴밀히 협력해 값진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성 기자

## 전북대 의생명융합관 '첫 삽'

143억 전액 국비 투입

내년 준공이 목표

최첨단 실습시설

대형 강의실 등 들어서

전북대학교 의생명융합관이 5일 의과대학 신축 현장에서 기공식을 갖고 첫 삽을 떴다. 이날 기공식에서는 김동원 총장과 김중석 의대학장, 조남천 전북대병원장 등 대학 주요 관계자들과 의대 학생회장, 시공사 및 감리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커팅식 및 시삽 행사 등이 진행됐다.

이번에 새로 건립되는 의생명 융합관은 연면적 6,900㎡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전액 국고 지원을 통해 14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2년 준공 예정이다.

이 건물에는 대강의실 3개실과 중강의실 2개, PBL실 16개실, CBT실, OSC실습실 17개실, CMS종합시뮬실, 시뮬레이션실, 컨퍼런스홀 등 의학 실습교육을 위한 최적화된 최첨단 시설이 들어선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수 연구 환경 또한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대학교 의생명융합관이 5일 의과대학 신축 기공식을 갖고 첫 삽을 떴다. 이날 기공식에서는 김동원 총장과 김중석 의대학장, 조남천 전북대병원장 등 대학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김중석 의과대학장은 "학생 증원에 따른 기존 건물의 학습 공간 부족에 따라 대형규모의 강의실과 학생 의학 실습실인 임상술기센터의 신축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특히 이 시설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입학 정원을 확보, 의사 국가고시 등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적을 내고 있는 전북대 의대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중석 의과대학장은 "학생 증원에 따라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

한 숙원이었던 의생명융합관이 오늘 첫 삽을 뜨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의생명융합관을 통해 전북대 의대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처하고, 참 의료인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원 총장은 "의생명융합관 건립은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 수준의 의과대학의 면모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줄 교육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모쪼록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돼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시설로 위용을 드러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은성 기자

## 의료기관·약국서 진단검사 권고시 48시간 이내 이행해야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 위해... 전북도, 행정명령 발동

전북도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집단환자 발생이 많아지고 있다.

그 원인으로 의료기관·약국 방문 시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의사·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다가 확진자 규모를 대량으로 발생

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의사·약사의 권고 시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게 해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여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방문한 사람으로,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사람이다.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안내 받았음에도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

검사 권고를 받았는데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확진이 돼 타인에게 전파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 제46조, 81조(벌칙)에 의거,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의사·약사가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할 때 처방전이나 안내문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 처방전이나 안내문을 가지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을 경우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아울러, 전북도는 전주시와 함께 코로나19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해 증상유무나 역학적 연관성에 관계없이 무료로 검사를 실시하며, 재난 문자를 발송해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 /유호성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